日本漂海錄題辭

金 庠 基

本書는 綾州 雙峯寺 僧 楓溪의 所著인 바 이제 楓溪 一行이 日本에까지 漂流케된 緣由를 살펴 보면 純祖十一年 辛未(一八一一) 二月에 海南 大芚寺(大興寺)에 불이 이러나 하루밤 사이에 千佛殿을 비롯하여 九寮가 모두 燒失되었다。 이에 玩虎講師 倫佑(註)는 스스로 勸軸을 메고 다니며 勸化를 行하여 燒失된 殿閣을 차례로 重建하고 同 十七年 丁丑 秋에 千佛殿을 이룩할제 畵師 僧 楓溪와 縞衣大士(始悟) 其他 여러 僧徒를 거느리고 慶州 祇林寺에 들어가 三朔동안 큰 佛事를 行하면서 楓溪 等에게 命하여 千佛을 造成케 하였다。 楓溪는 佛石山(佛岩山)에 들어가 玉石(蠟石?)을 쪼아 千佛을 만들어 가지고 同年 十一月 十八日에 배로 慶州 長津浦를 떠나 蔚山 長生浦로 向하였다。 그 때에 莞島에서 들어온 배를 使用하였으나 그 배는 船體가 狹少하여 무거운 여러 石佛을 싯기가 危險하였다。 마침 洪原의 큰 商船이 長生浦에 들어와 장차 海南으로 向하려 하매 이 洪原船을 貰내어 石佛七百六十八座를 싯고 莞島船에 二百三十二座를 分載하여 同月 二十四日에 長生浦를 出發하였다。 그런데 北(洪原)船에는 楓溪를 비롯하여 僧徒十五人과 俗人 十二名이 탔던 바 東萊近海에 이르러(二十五日) 暴風(西北風)을 만났다。 그때에 南(莞島)船은 體小함으로 곧 뱃머리를 돌려 海邊으로 들어갔으나 北船은 巨大하여 逆風으로 배를 돌릴 수가 없어 마침내 바람에 불려 漂流케 되었다。 이리하여 北船은 對馬近海를 거쳐 同月 二十八日에는 日本 筑前(北九州)의 大島浦에 漂着되었다。 楓溪 一行은 그 곳에서 日本 官人의 檢問을 거쳐 柴糧雜物의 供給을 받고 上陸이 不許된 채 長崎로 引導되었다。 (翌年 戊寅 正月 二日) 漂流 僧俗 二十七人이 長崎의 朝鮮館에 머물면서 다시 그 곳 官人의 檢問을 받기도 하였다。 楓溪 一行은 長崎에서 例에 依하여 三個月 半을 留한 뒤에야 歸還이 허락되어 日本船의 引導로 四月 十四日에 發船하여 平戶島 一岐島 等을 거쳐 五月 初에 對馬島에 닿아 例에 依하여 그 곳에서도 四十五日동안 머물었다가 六月 十七日에 發船하여 七月 十四日에 海南 앞 바다에 들어와 十五日에 大芚寺로 돌아왔다。 그리고 八月 十五日에 千佛을 新造法堂(千佛殿)에 奉安하였는데 漂流로부터 奉還한 佛像의 肩上에는 모두 『日』字를 써서 標識하였던 것이다。

本 漂海錄은 純祖二十一年 辛巳에 楓溪가 몸소 겪은 바 漂流의 始末과 經過 그리고 日本에서의 見聞 等을 자세히 記錄한 것인데 特히 長崎를 中心으로 日本의 風土 津關都會 人物 財貨 習俗 衣·食·住 乃至 漁採의 細節에 이르기까지 자못 廣範圍하게 收錄하였다。 이는 다만 大興寺 千佛殿 佛像의 緣起를 傳하여 줄 뿐만 아니라 當時 日本의 生活動態를 考究하는데에도 좋은 參考가 되는것이다(日本漂海錄 東師列傳 朝鮮佛敎通史 等 參照)。

〔註〕 玩虎講師 倫佑는 歷代 大興寺 十二大講師 中의 한 분으로서 白蓮禪師(禱演)의 衣鉢을 이었으며 草衣禪師(意恂)도 일찌기 이 분에게 師事하였음。

癸酉銘千佛三尊碑像의 天蓋石

黃 壽 永

鳥致院 瑞光庵에서 發見된 이 國寶碑像은 蓮花紋臺座와 身部가 一石이며 그 위에 놓이는 二段長方形 天蓋가 또 一石이다。 一九六二年秋 이 碑像을 公州博物館으로 옮길 때 洋灰로 固着되었던 天蓋를 分離시키고 다시 그 上面 곳곳에 발라 있던 洋灰를 除去하였던 바 寫眞에서 보는바와 같이 上下段의 四隅와 前後面 中央部에서 方形의 深孔이 露出되었다。 이 天蓋石은 現在 一端이 缺失되기는 하였으나 古式의 天蓋形을 模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의 高古한 類例로서는 경주 感恩寺址西塔發見의